

多文化 時代의 韓國語 教育

김 대 행
(서울대학교)

Kim, Daehaeng. (2000). Teaching Korean in the multicultural world.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3, 1-13.

The aims of a foreign language course are often defined with reference to the four skills: understanding speech,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hese aims, therefore, relate to the activities which learners are to perform. In practice, however, there always seem to be different aims of the learner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clarify certain issues that seem to arise from the difference of each learner's nationality and living place.

There are three types of learners of Korean: 1) foreigners in other countries, 2) foreigners in Korea, and 3) Koreans in other countries. For the foreigners in other countries, teaching Korean as communication by inter-cultural methods is effective. For the foreigners in Korea, teaching Korean as mutual understanding by cultural acquisition is quite important. Finally, for the Koreans in other countries, teaching Korean as national identity by cultural awareness is very necessary.

I. 論議의 前提

1. 多文化 時代

‘多文化’가 국가나 민족 또는 인종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多文化’가 젊은이, 노인, 주부, 학생, 지역 등 사회 집단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한국도 다문화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時代’라는 말을 굳이 붙여서 지칭하게 되면 과거와의 차이가 크다는 차별성을 뜻하므로 이 시대나 앞으로 올 시대의 한국 사회가 그 점에서 유난하거나 특별하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본다.

‘多文化’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媒體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거나, 대중 또는 고급 등의 질적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거나, 또는 문물의 교환이나 정보의 개방을 타고 유입된 여러 가지 생활 또는 사고의 방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면 한국 사회도 분명 다문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특수 사정이지만, 앞으로 남북의 통일이 어떤 형태로든 오고야 말리라는 데 의심이 없다는 전제에서 보면, 필연적으로 이질적인 생활 방식이 만나게 되리라는 점에서 다문화와 유사한 사회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多文化 時代’라는 조건은 이 모든 것을 두루 다 생각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뜻하기도 할 듯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문화적인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생기는 교육적 책무나 방법에 관한 것은 自國語教育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교육의 문제에 한정될 수 없고 언어 정책이며 사회적 합의까지가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 자리는 外國語教育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多文化라는 상황은 그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대를 ‘世界’로 놓고 韓國語를 교육하는 문제로 논의를 가져갈까 한다. ‘世界化’가 전혀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어 버린 이 시대의 구체적 상황 가운데 하나가 ‘多文化’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교육되는 일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문화와 교섭하고 부딪히면서 그 일을 성취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 상황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준다. 최근에 만났던 미국의 한국어 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 다문화 사회라는 조건과 관련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표제로 문제를 한정하

기로 한다.

그렇게 한다 해도 이 논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하나는 ‘韓國語’라는 명칭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 특히 언어교육과 문화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外國語教育 차원의 논의라면 교육의 位階가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2. 韓國語라는 명칭

‘韓國語’라는 명칭은 歐美의 용어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거부감마저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다. 우리의 自國語를 가리키는 ‘國語’라는 용어는 유독 동양의 韓·中·日 세 나라만 쓰고 있고,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national language’쯤 되는 것이므로 폐쇄적 국가의식 내지는 國粹主義的 냄새가 물씬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래서 ‘國語’라는 말을 버리고 ‘韓國語’라고 해야 ‘영어’며 ‘에스파냐어’와 같은 줄에 서는 용어법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한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언젠가 남북의 통일이 왔을 때, 북쪽은 ‘朝鮮語’라고 하고 남쪽은 ‘韓國語’라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보면 그 용어 통일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듯하다. 궁색하지만 이런 사정도 ‘國語’라는 용어를 쉽게 버리지 못하게 움아매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구차한 둘러댐이고, 우리말 조어법이 본디 그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과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했던 역사적 과정에서 배태된 산물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이를 꼭 폐쇄적인 태도라고 나무라기만 할 일은 아닌 듯하다. 「訓民正音」序文에도 諺解本은 ‘나라 말씀’이라고 하였고, 解例本에서는 ‘國之語音’이라고 한 용례가 이미 있음이 그 증거가 되어 준다.

‘韓國語’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FL)’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二重言語로서의 한국어(KBL)’ 등을 가리킨다. 영어로 쓰면 ‘as’ 하나로 족한 용어를 ‘-으로서의’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말에 일찍이 보기 드문 용례이기도 하거니와 그 어감도 무척 어

색하다. 또 꼭 증거를 삼자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日本도 ‘國語’와 ‘日本語’ 두 가지를 써서 단출하게 구분하는 것도 참고로 삼을 만하다.

3. 文化와 外國語教育

外國語教育과 文化의 관계는 여기서 길게 논의할 바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歐美의 학계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논의가 진작부터 전개된 바 있고, 그것을 참고하면 족한 처지에 원론적 고찰의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할 때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을 참고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

‘文化’라는 용어도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대로 성취 문화(big C. achievement culture)라고 하는 역사, 지리, 문학, 기술, 음악 등과 함께 행위 문화(little c. behavior culture)로 불리는 삶의 방식 전체를 포괄하고, 여기서 나아가 사상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 가치,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것이 추세인 듯하고, 언어 교육은 문화의 습득과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Tomalin & Stempleski, 1994, p. 6).

교육의 위계에 관한 고려도 여기서는 피해 가고자 한다. 사실 교육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위계성을 도외시한 일반론의 전개는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방면의 논의가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실천이 중시되는 교육 논의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비난까지 흔히 받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피해서 논의를 하는 까닭은 여러 형편이 그럴 계제가 못 되기 때문이다.¹⁾

1) 여기서 ‘여러 형편’이라 함은 논의의 복잡성을 감당하기 어려움, 준비의 불충분 등, 주로 필자와 관련되는 것들을 뜻한다.

II. 在外外國人을 위한 文化 敎育

1. 敎育 對象의 特性

한국어교육의 대상 가운데 첫째 유형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在外外國人]이다. 재외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일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가르치는(Teaching of Korean as a Foreign/Second Language) 성격을 지닌다. 근래 동남아를 위시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 유형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도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교육인 경우가 있고, 대학의 교양 또는 전공교육 일부일 수 있으며, 성인들을 위한 사회교육일 수도 있다. 나아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지향이 매우 상이할 수도 있다. 학구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습득하는 어휘에서부터 특성화가 필요해질 것이고, 상업 기타의 특수한 목적이 있다면 친교의 언어를 비롯한 일상 언어의 습득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전자가 ‘大文字 文化(big C.)’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면 후자는 ‘小文字 文化(little c.)’에 더 치중하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2. 疏通을 위한 文化 習得

재외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각기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외국어의 습득에 그 일차적 중점이 놓이는 이상 가장 중요한 목표는 훌륭하고 성공적인 의사 소통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언어 활동에 결합하고 용해되어 있는 문화 요소들을 분별하고, 익숙해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교육의 방법이며 자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하다. 문화적 상징물 분별하기, 문화의 산물을 다룰 줄 알기, 일상 생활과 행동 또는 의사 소통의 유형에 익숙해지기 등 많은 요소와

방법들을 교육 활동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유형의 교육에서는 외국인이 韓國語를 매우 어려운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진다. 敬語法의 발달, 語尾 활용의 특이성, 助詞의 다양성, 漢字語의 파생, 다수의 예외적인 용법 등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외국어 교육에서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제(task) 중심의 외국어 학습법이 한국어 교육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현장은 보고하고 있다.

이런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문화의 구조적 원리를 교육의 요소로 삼는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비교(cross-cultural)나 문화 종합(inter-cultural)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 자국의 문화가 지닌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동질성과 이질성의 분별을 통한 습득의 방법을 권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在韓外國人을 위한 文化 教育

1. 教育 對象의 特性

둘째 유형으로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在韓外國人]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재외 외국인 교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사람이 한국의 삶, 즉 한국의 문화 속에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접근이 더 쉽고 쉽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 청소년들의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어학 연수나 유학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 한국어 교육의 효과는 가장 빠를 수 있는 유형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문제되는 대상은 대체로 성인이고,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워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한국에 동화되어 한국 국민으로 살아갈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외국인인 한 자신의 문화를 그대로 지니고서 한국

어를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문화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습 차원을 넘어선 생활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언어 학습에서는 문화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차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외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요소의 교육과 구별할 필요가 생긴다.

2. 共生 또는 相生을 위한 文化 習得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외국어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의사 소통에 놓이지만 在韓外國人의 한국어 습득은 단순히 의사를 소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의사 소통까지 실패할 수 있고, 그렇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동화에만 치중하면 삶의 의의까지가 훼손된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화’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세계화를 흔히 세계가 한결같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기능적으로는 그런 가상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인간 삶의 본질과 조건으로 보건대 그러한 획일화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점과 관련하여 문화의 세계화는 불가능하며 실상은 문화 시장의 세계화일 따름이라는 견해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한 듯하다.

문화의 세계화를 운위하는 것은 언어의 오용이다. 이 표현은 쓰기 편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담론에서는 추방되어야 한다. 이 대상은 분석하면 사라져 버린다. 기껏해야 우리는 소위 ‘문화적’ 재화(영화, 방송, 음반, 언론매체, 특히 잡지)를 취급하는 일부 시장의 전지구화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문화 산업과 문화를 혼동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것이다.²⁾

세계화가 실상은 강대국의 시장 전략과 맞물린 구호일 수 있음을 경계

2) Warnier, J. P. (1999).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주형일 역. (2000). *문화의 세계화*, 한울, p. 151.

한 바르니에의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을 생각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기 자신은 어떤 공동체엔가 소속된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회적 삶을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니 전세계가 동일한 문화로 살아가는 삶이란 그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이렇게도 말한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 분열, 자기 것, 패거리, 말씨, 사는 곳, 계급, 출신지, 정파, 지역, 이념, 종교에 따른 구별을 만들어 내는 기계이다. 이런 분열은 전통에 의해 전승된, 지역화되고 사회화되고 언어화된 정체성을 나타내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기존의 문화를 영속시킨다.³⁾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세계화를 획일화 또는 세계적 동질성으로 바꾸어 생각하려는 경향은 어쩌면 강대국의 힘에 의한 문화 재편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가 짙다. 미국 연방정부가 마련한 21세기를 위한 외국어 교육의 5C(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 기준은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철저히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감탄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미국에 의한 세계 지배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세계화의 길은 여러 종류의 異質性이 지구상에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서 찾아야 하며, 그것을 요약하면 共生 또는 相生을 위한 문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같거나 혹은 다른 정체성을 한국의 문화와 비교하고 공감하면서 인정하고 인식하는 문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문화 비교 또는 문화 종합의 길을 통하는 것이어야 하리라고 본다.

3) 앞 책, p. 152.

IV. 在外韓人을 위한 文化 教育

1. 教育 對象의 特性

韓國語教育의 셋째 유형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在外韓人]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다. 실제로 이 유형이 현재로서는 한국어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中國에 있는 朝鮮族은 韓國語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日本이나 美國을 비롯한 외국에 사는 상당수의 한인 1.5세나 2세대 가운데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하다. 母國語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모른 채로 그 나라 국민이 되어 사는 데서 오는 여러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無視, 隱蔽 또는 看過되어 왔으나 근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모국어의 습득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유형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이중언어로서 모국어 수준으로 습득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운 언어 구사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목표나 다루는 언어 자료에서 여타 유형과 매우 상이한 특수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2. 正體性을 위한 文化 教育

1992년의 LA 폭동은 在美韓人들에게 많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다고 한다.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그저 미국인으로만 생각하고 성장한 韓人 1.5세 또는 2세대들이 4.29로 기억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은 영원히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在美韓人들로 하여금 아메리카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게 했던 이 사건이 준 충격은 韓國系美國人 대학교수의 글로 발표되어 전문서적에 수록되기도 하였다(Kim, 1995, pp. 519-535).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국어를 새삼스럽게 공부하려는 변화가 거세게 일었고, 미국에 동화하는 것만이 꿈이었던 在美韓人들

도 기금을 모아 1997년 SATⅡ에 한국어를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에스파냐어, 히브리어, 이태리어, 라틴어에 이어 미국 고등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장태한, 2000 참고).

지난 6월, 미국 전역의 정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을 만났을 때, 상황과 대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학교에서 한인 1.5세와 2세들의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아가 김동인의 「감자」,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 3.1운동 기록, 6.25 전쟁 포로 이야기 등을 자료로 삼아 학생들의 분석을 통해 역사, 지리, 사회 제도, 문화 유산, 문화적 전형, 가치관 등을 습득시키는 뉴욕주의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은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이 교육의 특징은 정체성의 확보를 위한 문화 교육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진정한 세계화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떠한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시사해 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조차도 그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非白人이 그 사회의 주인이 되거나 동화하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은 확인하게 해 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곳의 문화적 특성이 조화롭게 공생 혹은 상생을 하도록 삶을 설계해야 하고, 끝끝내 자기는 자기 자신일 따름이므로 미국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 한국어 교육은 책임과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음을 본다.

미국의 형편이 이러할 때 일본과 같은 특수한 사회는 또 어떠한 것인가에 생각이 미친다.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일본인 사회의 關入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리 피부색이 같아도 결국은 한국인일 따름인 그 사회에도 한국어 교육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세계화 시대의 참된 모습은 正體性을 확보한 사람들끼리의 共生 또는 相生임이 분명해진다.

이런 특수성과 목표를 위하여 재미 한국어 교사들은 종합적

(interdisciplinary) 교육의 방법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의 단어, 하나의 과제(task),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그것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종교, 지리, 기술, 교육, 윤리, 문학 등 다양한 제국면이 종합될 때 언어의 습득과 향상도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뿐더러 한국 문화의 이해와 습득을 통한 정체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교육의 자료로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문학에 대하여 그 예술적 완성도에 주목하는 대신, 사회, 정치, 역사…… 등 문화의 제국면이 종합적으로 교육될 수 있음을 중시한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삼도록 교육하고, 셰익스피어를 읽도록 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유럽 연합에 속하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 교육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남는 問題

문화적 요소가 고려된 외국어 교육이 의사 소통은 물론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共生 또는 相生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다.

한국어가 외국어로 교육될 때 거기에 관여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고 습득하는 시각은, 그것이 외국의 그것인 한, 아무래도 차이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차이를 강조하면 할수록 이질성이 부각되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문화 간의 거리감이 상당해질 것임도 물론이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 아마 ‘맞아 죽을 각오로 쓰는…… 운운’의 책에 표백되는 이질성의 노출로 나아가기 십상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inter-)인 인식과 습득을 강조하고 공동 운명체로서의 인류를 역설하여도 그 이질감의 해소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요소를 도입하여 그 지각과

습득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질감과 거리라는 병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한 수준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숙제가 되리라고 본다.

다음,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이상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을 갖는 의문도 없지 않다.

한국어를 잘 배워 우리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외국인 가운데는 사투리가 특기여서 사랑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수다떨기를 잘 익혀서 인기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장기대회에 나온 우수한 인재들을 보듯이 볼 따름이지 친근한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외국인이다. 그리고 외국인이기에 그것을 웃으며 보아 준다. 일종의 관용일 따름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무려 50년을 살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70대의 노인이 학회의 발표에서 ‘-어요’나 ‘-했거든요’로 끝을 맺는 말로 시종하는 것을 보았다. 공식적인 말투를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친근감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을까? 그 속 마음까지를 다 헤아릴 수야 없지만 그 사람을 외국인으로 우리가 보고 그 사람 또한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니 여전히 외국인은 외국인일 따름이다.

외국인이 그 언어를 母國語로 하는 話者보다 더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외국어 교육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또 꼭 그럴 필요는 있는 것인가 — 이러한 의문이 없지 않다. 이 생각의 꼬트머리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5C 기준의 궁극적 목적은 정말로 무엇을 위함일까 하는 생각도 이끌어 나온다. 우리가 외치는 세계화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도 여기 함께 뒤섞여 있다. 그것은 혹 변형된 언어 식민주의로 의심받을 만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外國語教育이 달성해야 할 수준은 어떤 것일까? 同時通譯士와 같은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면 그 답이 자명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말할 때는 그런 전문성보다는 일반 보통교육을 전제하는 학교교육이거나 교양 수준의 사회교육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다가오고야 말 多文化 時代의 外國語教育도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 그러해서 여러 문화가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말

대로라면 ‘衝突’이고, 뮐러(Harald Müller)의 견해에 따르면 ‘共存’인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世界人으로서의 능력 또는 소양이나 태도와 관련되는 수준의 외국어 교육 논의라면, 그 文化 教育의 이상이 도달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지점이 어디여야 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 싶다.

참 고 문 헌

- 장태한. (2000).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동포 사회의 미래.
- 장태한. (2000). 한국어 교수법 연수 자료.
- 장태한. (2000). *Foundation for SAT II Korean*.
- Kim, E. H. (1995). Home is where the Han is: A Korean-American perspective on the Los Angeles upheavals. In D. George & J. Trimbur (Eds.), *Reading culture*, 2nd edition, Ha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Tomalin, B., & Stempleski, S. (1994).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Warnier, J.-P. (1999).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주형일 역. (2000). *문화의 세계화*. 한울.